

## 우리의 얼굴을 감추고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에스겔39장 21절-29절)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곡의 세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곡의 세력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혹자는 곡을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전무후무한 세계대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곡의 세력은 다크호스와 같이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잠재된 위협 세력이며,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세력으로 종말의 때까지 신자의 삶에 상존합니다.

곡의 세력은 종말의 때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며 신자의 삶을 위협합니다.

신자가 곡의 세력을 감지할 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곡의 공격에 대비하는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곡’이 언약 안에 있는 신자를 공격할 때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시어 곡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자기 백성을 참여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곡의 전쟁에서 구원하는 과정을 4장면으로 묘사하여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곡의 패배하는 장면이고(1-8절),

두 번째 장면은 곡이 버린 무기를 불태우는 장면이고(9절-10절),

세 번째 장면은 패배한 곡의 군사들의 시체를 일곱 달 동안 매장하는 장면이고(11절-16절),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그 땅을 정결히 한 다음에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장면입니다(17절-20절).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내가’라는 주어가 무려 13번이나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체가 되심을 의미합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기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곡의 세력을 경고하시고 종말에 곡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후, 21절-29절에서는 다시 바벨론 포로지라는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도 곡의 세력 중 하나임을 암시하며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열방에 자기를 계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21절-22절)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의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임을 상기시킵니다.(23절-24절)

25절부터 29절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29절)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 공동체의 운명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과 가려지는 것에 의해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므로 언약백성은 곡의 세력을 감지하며 늘 깨어 그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제사장들은 예배가 끝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를 원하노라.”(민수기6:25-26)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비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감추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자기 얼굴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얼굴로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자기 얼굴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울 줄로만 알았던 인간의 얼굴은 온갖 탐욕, 불의, 악의로 가득 찬 차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있는 존재물로 자신의 비참성을 가리며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얼굴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대비할 수 없는 다양한 곡의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곡에 위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가면을 벗어 버리고 벌거벗은 민낯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 자리에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이 때 곡의 세력은 한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며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시 67:1-2).

이처럼 신자가 자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곡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빛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